



人口政策에 關한 神學的 見解

崔 鏞 錄 神父

人口問題에 關한 神學的 見解는 時期와 環境에 따라서 變化 發展이 있었다. 그러나 問題 基礎에 흐르는 一貫된 態度는 어디까지나 確固 不動하였으며 앞으로도 永遠히 變치 않을것이다. 卽 人間의 生命은 하느님으로 부터 받았으며 人間은 하느님 모습대로 創造되었고, 人間은 모든 被造物中 가장 으뜸이며 따라서 人間 尊嚴性은 神聖不可侵이라는 事實이다.

우리의 立場은 唯物論과 對照의인데 그들은 人間 尊嚴性을 否定하고, 人間도 하나의 高等動物에 不過하며 機械처럼 움직이며 말하며 일할 줄 아는 動物로 보고, 人間의 自由란 하나의 奢侈品에 不過하며 人間 尊嚴性은 하나의 觀念이며 排斥해야할 불조아의 思考方式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人間은 必要에 따라서 增減을 自由로 하는 鳴아리나 다른마 없으며 境遇에 따라서는 大量 殺戮을 敢行한 例를 흔히 볼수 있다.

共產國家에서 例外 없이 피의 肅清을 敢行한 事實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唯物論과 到底히 妥協할 수 없다. 教會의 人間生命에 對한 基本立場은 上述한바 같으나 人口問題에 對한 態度는 時期와 環境에 따라 變化 發展했으므로 나는 이를 大略 三大分할수 있다고 본다. 第1期는 創世以來 예수님의 誕生에 이르는 時期이며 第2期는 教會 創設以後 1960年代에 이르는 때 이고, 第3期는 第2次 바티칸 公議會 以來 오늘에 이르는 時期로 본다. 以下 期別로 教會의 人口政策에 對한 見解를 살펴 보코저 한다.

第1期

하느님께서 宇宙를 創造하실때 段階的으로 하셨다. 먼저 빛을 있게 하시고, 次次 無機物로

부터 始作하여 生命體에 이르는 順으로 하시되 下等에서 高等의 生命體에 이르게 하셨고, 맨 끝에 人間을 創造하셨다. 卽 하느님께서서는 自己 모습대로 人間을 創造하시고, 祝福하여 주시며 너희는 子孫을 피뜨려 땅에 充滿하도록 하며 地上 空中 水中의 모든 動植物들을 支配 統治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를 보시고는 참 좋다 하셨다. 이는 創造 第6일에 있었던 일이다.

(創世記 1:26~) 그러므로, 人口問題에 關한 第期의 教會의 態度는 優先 빨리 子孫들이 늘어서 온 땅을 덮고, 地球 全部를 支配하는 일이었다. 또한 그때는 山川이 肥沃하여 많은 所出이 있었으며 이마에 땅을 흘리지 않고서도 일마든지 살수 있는 資源이 豊富하게 있었다. 따라서 人口問題란 速히 繁殖하여 地球 到處에 植民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人口過剩이나 資源不足 같은 일은 생각할 必要조차 없었다. 그러나 原罪로 말미암아 苦痛을 알게 되었고, 女人은 解産때에 苦痛을 맛보아야만 했다. 또한 樂園의 豊饒는 사라지고, 땅은 苦痛스런 勞動의 代價로서만 사람이 살수 있는 所出을 주게 되었다. 따라서 人類는 한 핏줄의 兄弟姉妹 이건만 生存을 위해서는 競爭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하느님의 攝理는 繼續 사람들로 하여금 繁殖케 하여 새로운 땅을 찾아서 地球 到處에 흩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卽 새로운 家族들이 獨立하기 위하여 開拓地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人類는 四方에 퍼져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 攝理를 거스려 自己 快樂만을 위하여 사는 것은 罪惡이며 實地로 自己 快樂만을 위하여 새 生命創造의 義務를 拒否한 Onan은 天罰을 받았다. (創世記38:9) 따라서 舊約時代는 人口의 膨張 및 擴散의 時代라고 規定할수 있다.

第 2 期

예수님이 오신 當時도 큰 變化는 없었고, 예수님이 公生活를 始作하시기도 人口問題에 對하여 直接的 言及은 없었으나 間接的으로는 男女의 婚姻은 單純한 契約 以上の 것 임을 指摘하시며 하느님이 맺어 주신것을 사람이 풀수 없다고 하셨다. 또한 예수님께서서 行하신 첫 奇蹟이 바로 가나村에서 舉行된 結婚式에서 물로하여금 變하여 술이 되게 하신 것이었다. (요한2:1~9)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人口問題에 對하여 直接的 言及은 없었고, 使徒들 中에서도 스승 예수님처럼, 直接的 言及은 없었고, 單只 婚姻에 對해서만 言及하셨다. 代表的으로 바오로 使徒를 꼽는데 그는 고린토 사람들에게 보낸 첫째 便紙에 말씀하시기를 婚姻도 좋으나 獨身으로 살면서 갈림 없이 온전히 하느님 事業에 專念하는 일은 더욱 좋은 일이라고 하셨는데 바오로使徒의 이런 見解는 어디까지나 世界의 終末이 곧 오리라는 것을 前提로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世界의 終末은 바오로 使徒의 생각처럼 卽時 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으나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教會 創設時期에 豫期했던 世界의 終末은 오지 않았으나 代身에 酷毒한 迫害가 繼續되어 三百年間이나 難關을 겪어야 했다. 그 무서운 迫害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신 偉大한 神學者 아오스딩도 婚姻에 對해서는 매우 否定的 態度를 取하였으니 이는 바오로 使徒의 見解를 直譯했던 때문이며 또한 自己 自身の 放蕩했던 過去때문에 그랬으리라는 것을 쉬 짐작할 수 있다. 그도 人口問題에 對해서는 直接的 言及은 없었으나 信者들 子女의 出生은 곧 福音傳播와 直結되기 때문에 多産을 勸하였고 夫婦는 子女 出産을 目的하여서만 正當한 夫婦이며 獨身으로 있음은 더욱 좋은 일이라고 勸獎하셨다. 이 見解는 中世 神學者들에게 繼承되어 大部分 大同 小異한 見解를 가졌었다.

20世紀에 이르기 까지 이 見解는 繼續되었는데, 그동안 이런 見解가 繼續된것은 人口增加가 繼續되었으나 開拓할 餘地는 얼마든지 있었고 信者 子女들의 增加는 곧 福音의 傳播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좋은 例가 南 北美 大陸

에 基督教가 傳播된 것인데 이는 舊大陸 信者들이 新天地에 進出하여 福音을 그 땅에 심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教會史上 特記할만한 일다.

第 3 期

그러나 20世紀 中葉에 와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特히 舊大陸이나 아세아地域같은 傳統의 文化圈에 屬하는 여러 나라들에서 人口問題는 國家의 將來를 左右할만한 重大한 問題로 登場했으며 심지어는 한 民族의 死活에 關한 問題로 까지 浮刻하기에 이르렀다. 이 重要한 時機에 마지 聖神의 感導하심으로써 요한 23세께서는 公議會 召集을 宣言하셨던 것이다. 이 歷史의 第二次 바티칸 公議會는 數 많은 問題들을 論議하였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큰 論議의 對象이 되었던 問題가 바로 人口問題였던 것이다. 이 公議會에서는 人口問題에 對하여 教會의 二大見解가 그대로 露出되었는데 卽 傳統의 神學派와 改革의 神學派사이의 날카로운 對立이 었다.

雙方의 見解는 各各一理가 있기 때문에 公議會에서만 論議해서 多數決로 決定할수는 없어 처음 公議會를 召集하신 요한 23세께서, 다음에는 바오로 6세께서, 引繼받아 이 問題를 討議研究할 特別委員會를 任命한것과 그들에게 人口問題를 좀더 深刻하게 研究해 보라 命하셨다 한다.

그 特別委員會의 結論은 公表되지 않았으나 推論에 의하면 改革派 神學者들의 見解가 優勢하기는 하였으나 하느님의 攝理나 人間 尊嚴性에 關한 眞理를 單純한 多數決로 決定할수 없음은 當然한 일로 바오로 6세 教皇께서는 이 特別委員會의 意見을 參考로 하셨을뿐 傳統의 神學立場을 再確認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자 어떤 革新的 斷案이 나리질것을 期待하는 一部 信者 神學者들은 失望했던 것이다.

바오로 6세께서 發表하신 Humanae Vitae(人間의 生命)는 1930年 Pius 11세께서 發表하신 Casti Connubii(貞潔한 婚姻)와 大同 小異하며 傳統의 見解를 再確認한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婚姻의 神聖性 卽 婚姻으로 因한 信者들의 結合은 不可解消하며 이 婚姻制度는 하느님께서서 按

配하신 것이며, 이는 곧 聖事임을 強調하시고 婚姻의 成果인 子女은 곧 하느님의 祝福으로 받아 드릴것을 말씀하셨다. Humanae Vitae 回勅도 이 見解에서 크게 發展된것은 없다.

이 回勅들의 特徵은 한 마디로 婚姻은 個人事로 夫婦의 社會的 責任問題는 크게 考慮하지 안은 듯한 印象을 준다.

이에 反하여 改革的 神學者들은 主張하기를 目下 世界는 새 局面에 到達하였기 때문에 傳統의 立場에서 脫皮하여 새로운 次元으로 跳躍할것을 要求하고 있다. 婚姻은 두 當事者들의 사랑의 結合이며 새 生命의 創造도 重要하지만 夫婦의 사랑의 表現도 極히 重要한 意義가 있음을 強調하고 있다. 卽 Louvain大學 倫理學 教授이며 公議會에서 많이 活躍한 Suenens 樞機卿의 神學顧問役으로 있던 Yaosen教授는 主張하기를 夫婦는 사랑의 表示로 새 生命의 創造를 目的하지 않더라도 夫婦行爲는 뜻있고 妥當하다. 하였다. 또한 이 見解는 하느님의 攝理에도 違背함이 없음을 알수 있다. 卽 女人은 아무 때나 妊娠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中 單只 몇날만이 可妊하다 하며 夫婦는 이 時期나 時期外나를 莫論하고 언제든지 夫婦는 正當하게 사랑을 交換할수 있음을 是認하고 있으니 夫婦는 每事에 새 生命의 創造를 目的하지 않아도 됨을 우리는 알수 있다. 또 다른 한가지 論據는 夫婦의 社會的 責任문제 이다.

옛날처럼 福音을 前播해야할 많은 餘地가 있고 따라서 많은 信者들이 必要하여 多産이 福이든 時代와는 달리 지금에 와서는 福音이 世界萬邦에다 퍼졌다 하여도 過言은 아니다.

또한 Malthus의 豫言이 그대로 的中하지는 않았으나 地球의 資源과 人口 또한 公害와 人口問題는 深刻의 度를 넘어 危險線에 까지 到達하여 多産만이 能事가 아닌 때에 이르러 우리도 從來의 傳統의 神學觀에서 脫皮할 때가 왔다고 본다. 그렇다면 公議會를 召集하신 요한 23세의 말씀대로 人口問題를 Aggiornamento(現實과 調和)할 때가 왔다고 할 수 있다. 教會史를 보면 어떤 問題를 가지고 時代에 따라서 그 時代 現實에 맞도록 再解釋했음을 볼 수 있다. 卽 가톨릭 信仰은 不變이지만 그 解釋은 時代와

環境에 따라 새로히 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人口問題에 關해서도 이 原則適用을 主張하는 것이다. 世界는 지금 思想的 對立이 激甚했던 東西 對立은 局部的 몇몇 地域만을 除外하고서는 弱化되는 反面에 經濟的 對立인 南北 對立으로 1960年代를 契機로 轉換했다.

卽 富裕한 나라와 貧困한 나라의 對立은 世界 資源의 危機問題와 더불어 더욱 激甚해지고 있으며 貧困한 나라들은 例外없이 人口問題로 苦悶하고 있다. 따라서 바로 卽시는 Popolor Progressio(諸民族의 發展)回勅을 發表하심으로써 深刻해진 社會 및 人口問題에 깊은 關心이 있음을 나타내셨든 것이다. 그러나 人口問題에 있어서 그가 取한 態度는 不確實하고 自信이 없는 일에 선뜻 同意하기가 어려워 一段은 傳統의 立場을 取하시며 좀더 研究가 進行되고 確實하다고 自信이 생길때에 비로서 教會의 새로운 態度를 表明하기 위한 것임을 理解해야 할 것이다. 時急히 必要하니까 되는대로 式의 拙速主義는 危險하기 限이 없다. 特히나 다루어야 할 對象이 人間의 生命이며 人間尊嚴性과 直結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좋으니 自信있게 말할수 있을 때까지는 絶對로 輕率한 判斷은 삼가야 한다. 그동안 教會를 誤解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卽시 6세의 이 回勅을 마치 時代 錯誤의이며 反動的이라고 非難하였으나 이는 마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短見이며 適切한 時機에 새로운 神學的 態度表明이 있을 것임을 짐작할수 있다.

漸次 深刻해지는 世界的 資源難, 隔差가 더욱 甚해져가는 貧富國間 經濟問題 또는 公害問題등 人口問題 解決없이는 이 諸難問題 解決이 不可能함을 잘 알고 있으나 單只 그 方法論에 있어서 意見이 다를뿐임을 理解하여야 한다. 理由는 人間의 尊嚴性이 侵害될 憂慮가 多分히 있기 때문이다. 卽 人間의 生命은 병아리의 生命과는 다르다. 따라서 必要에 따라서 많이 키우든가 必要없다 하여서 없애버릴수 없기 때문에 問題를 慎重히 다루고 있을 뿐이며, 今年 불가리아 首都에서 열렸든 世界 人口會議에도 教會에서는 代表를 派遣하여 教會의 基本立場을 再闡明하였고, 따라서 人間尊嚴性을 再確認하면서 서투른 拙速主義를 警告했음을 알고 教會의 人口問題에 對한 眞意를 理解토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